

윤병태 나주시장, 다도 강정마을서 7번째 마을좌담회 개최

저녁 시간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현안·애로사항 경청

지역에서 손꼽히는 청정 환경 덕택에 장수 마을로 유명

윤병태 나주시장이 일과 이후 다도면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나주시는 지난 8일 오후 7시 다도면 암정리 강정마을회관에서 윤병태 시장과 주민 간 7번째 찾아가는 마을좌담회가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마을좌담회는 저녁 시간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격의 없는 대화 자리로 진행된다. 크고 작은 마을 현안,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선 8기 소통 시책이다.

윤 시장은 해묵은 마을 현안, 생활 고충이 있지만 먼 거리, 거동 불편, 바쁜 생업 등으로 시청을 방문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왔던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매달 1회씩·오지 마을을 우선으로 방문하고 있다.

다도면 소재지 남쪽 방향으로 2km거리에 있는 강정마을은 다도 일봉암과 깃대봉 사이에 위치해 마을 전체가 산에 둘러싸여 있어 포근한 느낌을 준다.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환경 덕택에 장수 마을로 유명하며 현재 30여 가구가 오순도순 화합하며 살고 있다.

좌담회에는 유병재 마을이장, 강제석 노인회장, 서광순 부녀회장을 비롯한 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유병재 마을이장은 "수맥이 좋고 물이 계속 흘러서 강(江) 자를 넣고 마을 형상이 전체적으로 정자(亭子) 모습 같아 강정(江亭)이라고 불린다"며 "먼 마을까지 이렇게 찾아와준 윤 시장을 주민 모두가 환영한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윤병태 시장은 "마을 건의사항을 물론 평소

주민들께서 생각하셨던 것들, 저를 나무라셔도 좋으니 주제, 분야 구분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담회를 통해 주민들은 '시도 16호선 다도간 진입도로 개설 및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 진행 상황', '나주호 수변공원 수목 이식·잔디 평탄화', '마을 배수로·하수관 복개', '마을 안길도로 개선', '폭우 대비 사방댐 조성', '산책로 휴식 의자 설치', '영농 폐기물 야적·수거 공간 마련', '화재 대비 대나무 벌목' 등을 건의·요청했다.

특히 유병재 이장은 "귀촌 11년차인데 한 번도 아이 울음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간 열한 분이 들어오셨다"며 "앞으로 10년 후 마을 공동화에 대비한 나주시의 관심과 연구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윤병태 시장은 "다도면뿐만 아니라 농촌 마을 전체에 인구 소멸은 심각한 문제로 귀농·귀촌정책은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에 있는 마을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귀농귀촌 시범마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외지인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들의 수용적 자세, 귀농·귀촌에 적합한 마을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의하신 사항은 한 건도 빠짐없이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해소해가도록 하겠다"며 "청정한 환경, 수려한 경관을 갖춘 마을을 잘 가꾸어 사람들이 모여드는 마을이 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화순군, 벼 친환경 재배지 대상 공동방제 추진

1·2회차 공동방제 작업비, 개인까지 확대 지원



화순군은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 위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벼 친환경 재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벼 친환경 재배지는 총 530ha에 이른다. 이번에 추진하는 벼 친환경 재배 공동방

제 지원사업은 모를 심은 논을 기준으로 ha당 총 18만 원(1, 2회차 공동방제 작업비)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상을 확대하여 단지뿐만 아니라 개인 농가에도 지원한다. 단, 친환경 인증 미획득 시에는 사업비 지급이 제외된다.

효율적인 공동방제를 위해 벼 친환경단지과 개인 농가는 방제수행자를 선정하여 전문업체가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농가 대상 방제수행자는 농업기술센터에 공동방제 신고서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군에서는 이상고온 등 벼 병해충 발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방제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 공동방제로 병해충 발생 밀도를 감소시켜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우리 군의 쌀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지원금액 30만원으로 10만원 추가 지급...지원연령도 80세까지 확대

담양군이 여성농업인의 복지서비스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종 문화, 스포츠, 여행,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군비를 추가해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추가 지급하고 지원 연령도 현재 75세에서 80세까지 확대해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달 14일까지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를 시행하고 8월경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며,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할 계획이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수목원, 미꾸라지 잡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구례수목원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6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주말에 미꾸라지 잡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례수목원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수곡 길 걷기, 미꾸라지 잡기, 숲속 모기장 캠핑, 솟대 만들기, 곤충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오전, 오후 각 1회 운영되며, 회당 참여 가능 인원은 선착순 20명으로 제한된다.

참여 신청 및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구례수목원(061-783-0599)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곡성형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곡성군이 지난해 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 후 본격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일 곡성군청 소통마루에서 곡성형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

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이귀동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및 군 부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곡성군은 곡성형 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점검 △일자리 기본계획 추진 실무위원회(TF)구성 및 운영 △곡성군 일자리 정책 현황 및 중장기 계획 검토 △일자리 정책 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 △일자리 관련 주체들의 의견 수렴 △곡성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맞춤형 일자리 모델 발굴에 관한 사항이다.

곡성=양해영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